



“2005년 세계 10대 통합보안회사로 만들 것”

취재 김진경 기자



건강악화로 지난 3월 재택근무에 들어간 안철수연구소(www.ahnlab.com) 안철수 사장이 약 2개월 만인 5월 중순부터 1주일에 2-3회 출근해 회사 중요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CEO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6월 11일 안철수 사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2005년까지 10대 글로벌 통합보안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기업이 되는 것, 영혼이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전략적 리더로 자리매김

글로벌 통합보안기업 안철수연구소는 최근 조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조직 운영 체계를 개편하고, CEO 임원진 등 경영진과 부서장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했다. 이에 따라 안철수 사장은 회사 전체의 중장기 전략, 비전 추진 역량 강화, 중요 경영사항 의사결정, 미래 핵심 사업 발굴 등에 집중함으로써 명실상부한 CEO, 즉 '전략적 리더(Strategic Leader)로 자리매김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철수 부사장이 COO(Chief Operation Officer)로서 회사 전반의 운영을 관장하며, 경영전략실 송태종 이사가 국내외 사업전략 수립, 조직역량 강화, 관계사 협력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안철수 연구소는 안철수 사장이 CEO, COO 역할은 물론, 경우에 따라 부서장 또는 개발자의 역할까지 일부 수행해 왔으나 올해 250명의 큰 조직으로 성장하고, 지난 1월 임원진이 갖춰짐에 따라 CEO 역할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임원진에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트렌드마이크로 등 기업들을 많이 의식하고 있는 듯 하다는 질문에 안철수 사장은 “대만기업인 트렌드마이크로는 안철수연구소보다 10배 매출이 높다. 그것은 일본시장에서 성공했기 때문이다. 백신분야로 한 우물만 파는 것도 좋았겠지만, 그랬다면 세계 30위 정도에 머물렀을 것이다. 통합보안회사로 변신한 이유는 해외시장을 겨냥해 성공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했다.

세계시장 공략 비전 제시

안철수 사장의 건강악화에 대해 주주 등 주변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창업자 입장에서 내가 없어도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컴퍼니가 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는 때가 온다면 그만뒀야 할 것이다.” 또 주가에 대해서도 “핵심경영을 하는 회사가 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집중'과 '전략'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사장. 그의 바람대로 '안철수'라는 우산이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로의 변신을 기대해본다.